

금주는 보험업종에 주목할 시점

18.09.17(월)~18.09.21(금)

강승건. neo.cygun@hi-ib.com

1. 전주 주가 추이

	현재가	Mkt. Cap.	PBR (2018F)	PER (2018F)	ROE (2018F)	Performance					Weekly Net Buy			공매도 거래대금	
						1W	1M	3M	6M	YTD	Institution	Foreigners	Pension	1W	1M
KOSPI	2,339	1,411,601	1.0	9.4	11.2	0.9	3.0	0.1	-5.9	-5.2	39	813	140	1,899	8,525
KOSDAQ	828	157,607	2.6	19.7	13.4	-0.8	5.2	0.2	-6.5	3.7	-41	-111	8	526	2,309
보험	17,471	19,933	0.6	8.9	7.2	2.8	-0.4	-2.8	-13.6	-17.4	39	-22	16	20	85
증권	1,883	19,044	0.8	9.1	9.3	0.7	5.5	-4.9	-11.2	-5.2	21	4	8	13	80
삼성생명	96,000	19,200	0.6	8.4	7.1	4.3	3.0	-2.8	-18.6	-22.9	-3	11	-4	6	21
한화생명	5,070	4,403	0.4	7.1	5.8	3.2	2.9	-7.8	-21.3	-26.6	4	-0	1	2	7
ING생명	33,200	2,722	0.7	7.8	9.5	-3.2	-10.0	-18.6	-25.2	-37.8	-0	-1	-0	1	4
동양생명	6,300	1,017	0.4	9.7	4.3	-0.6	-7.8	-17.6	-14.3	-17.1	-0	-0	-0	0	0
삼성화재	265,000	12,554	1.0	11.9	8.7	2.5	-1.9	1.1	-6.0	-0.7	11	-8	11	3	18
DB손해보험	66,700	4,722	0.9	6.9	13.0	6.2	-1.6	10.2	-0.3	-6.3	14	-7	5	5	14
현대해상	37,850	3,384	0.8	6.2	14.2	2.7	-0.4	6.3	-1.7	-19.5	7	-4	4	1	10
메리츠화재	18,550	2,109	1.2	7.8	14.9	0.0	-2.1	-5.8	-14.3	-21.1	2	-2	1	0	4
한화손해보험	6,630	774	0.5	5.2	11.2	-4.2	-2.5	-5.7	-21.5	-18.6	-1	-0	-0	0	1
삼성증권	32,100	2,867	0.6	7.8	8.1	0.5	1.1	-10.1	-22.0	-12.3	-1	0	-3	2	8
미래에셋대우	8,390	5,523	0.7	9.4	7.9	1.2	5.4	-3.5	-10.6	-8.7	6	10	2	4	21
NH투자증권	14,000	3,940	0.8	10.0	8.5	1.8	10.2	-7.6	-2.8	0.7	12	-3	8	3	25
한국금융지주	74,700	4,163	1.0	7.4	14.3	4.6	9.2	-11.7	-10.5	8.3	8	-5	-2	2	12
키움증권	95,400	2,108	1.1	8.0	16.6	2.5	6.5	-11.7	-12.1	8.9	9	-4	1	2	12

자료: 개별 보험사, 증권사 추정치는 하이투자증권 기준, 지수 추정치는 Inguide 컨센서스 기준

2. 전주 동향

보험	보험업종 강세 시현: 전주 보험업종 강세를 시현하였음. 미국 10년물 금리가 3.0%를 돌파하면서 금리 모멘텀이 반영되었고 삼성화재의 삼성물산 지분 매각이 자체적으로는 계열사 지분 보유에 따른 불확실성이 해소되었고 그룹 측면에서는 추가적인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었기 때문임. 금리, 규제, 제도 등에 대한 기대감이 보험업종에 반영된 한주라고 생각함 ▶ 실손 보험료 2019년 1월에 인상: 순손보보험업종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고 판단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케어) 시행에 따라 실손보험의 성장 동향 우려, 그리고 보험료 인하 우려가 순손보보험업종에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었지만 이번 금융위원회의 발표로 해소되었다고 판단함. 2017년 4월 이후 판매된 실손보험은 3대 비급여를 보장하지 않고(특약가입시 가능), 자기부 담금이 30%로 매우 낮은 손해율을 시현하고 있음. 이 계약의 경우 보험료를 8.6% 인하하겠지만 2017년 4월 이전 계약의 경우 현재 높은 손해율을 감안하여 손해율에 따른 보험료 인상분과 문케어에 따른 손해율 인하분을 서로 상계하여 결론적으로 6~12%의 보험료 인상을 하게 된다는 것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규제의 합리성이 반영되었다는 것임. 문케어의 실효성의 정도에 따라 손해율은 변동할 것이고 결국은 손해율이 100%에 수렴하기 전까지는 보험료 인상 요인을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임.
----	---

증권	증권업종 악세 시현: 전주 증권업종은 KOSPI 대비 소폭 악세를 시현하였음. 지지난주에 이어 시장 지표 악화대비 증권사들의 실적이 나쁘지 않다는 점(우리는 채권금리 하락의 영향을 언급하였음, 8월 증권업 주요지표 정리)이 증권업종에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됨. ▶ 대형사 중심으로 IB deal 확대: 대형증권사의 국내 부동산 관련 IB deal들이 확정되고 있으며 해외 SOC 관련 deal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2분기에도 IB deal이 많았던 증권사의 WM 실적이 개선되었다는 점에서 IB 경쟁력의 WM 확산 가능성을 확인하였음. 따라서 시장변수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IB 부분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증권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

3. 주간지표 업데이트

	전주	YTD	Monthly							Quarterly					QoQ
			18.03	18.04	18.05	18.06	18.07	18.08 누계	Mom	3Q17	4Q17	1Q18	2Q18	3Q18 누계	
일평균거래대금	조원	17년대비, %							조원	%					조원
KOSPI+KOSDAQ	11.8	30.7	14.3	15.0	12.4	9.0	8.8	10.7	22.1	8.2	11.8	13.8	13.9	9.3	-33.1
KOSPI	6.4	19.7	7.8	9.1	7.5	5.5	5.2	5.9	13.1	5.2	6.0	7.0	8.1	5.5	-32.4
KOSDAQ	5.4	46.7	6.5	5.9	4.9	3.4	3.5	4.8	35.4	3.0	5.8	6.8	5.8	3.8	-34.1
신용잔고	조원	YTD, %							조원	%					조원
KOSPI+KOSDAQ	11.8	19.9	12.2	12.5	11.8	10.8	11.3	11.8	4.7	8.3	9.8	11.3	11.8	11.8	0.1
KOSPI	6.0	33.7	6.0	6.2	6.0	5.5	5.7	6.0	5.2	4.0	4.5	5.4	6.0	6.0	0.0
KOSDAQ	5.8	8.4	6.2	6.3	5.8	5.3	5.6	5.8	4.2	4.3	5.4	5.9	5.8	5.8	0.1
국고채금리[기말]	%	YTD, bp							%	bp					%
1년	1.84	1.7	1.85	1.85	1.85	1.83	1.73	1.84	11.2	1.53	1.85	1.89	1.85	1.84	-0.9
3년	2.02	-10.0	2.22	2.20	2.12	2.13	1.91	2.02	10.5	1.89	2.13	2.22	2.12	2.02	-10.7
5년	2.22	-12.0	2.49	2.48	2.35	2.36	2.10	2.22	11.3	2.08	2.35	2.43	2.35	2.22	-13.6
10년	2.41	-8.2	2.72	2.70	2.56	2.57	2.31	2.41	10.0	2.37	2.47	2.62	2.56	2.41	-14.5
약정 MS	%	17년대비, %p							%p						%p
삼성증권	6.0	0.0	6.4	6.1	6.0	6.1	6.0	6.0	0.0	6.2	6.0	6.2	6.2	6.0	-0.1
미래에셋대우	12.1	-0.4	13.2	12.8	12.3	12.4	12.2	12.4	0.2	12.7	13.2	13.3	12.8	12.3	-0.5
NH투자증권	6.3	0.3	6.4	6.4	6.4	6.5	6.9	6.5	-0.4	5.7	6.4	6.3	6.4	6.6	0.3
한국금융지주	5.7	-0.1	5.5	5.2	5.1	5.3	5.4	5.6	0.2	6.1	5.8	5.7	5.3	5.4	0.2
키움증권	17.7	1.2	18.5	18.2	17.9	16.9	17.4	17.6	0.2	15.3	17.4	17.5	18.2	17.3	-0.9

자료: KOFIA, Check, KRX

4. 금주 전망

보험	- 금주 보험업종은 강세를 시현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 국채금리 상승에도 주가 움직임이 제한적인 상황이었지만 삼성화재의 삼성물산 지분 매각으로 보험업종에 대한 투자자들의 주의환기가 진행되었고 금주 27일에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미국 금리 및 한국 금리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 더구나 연후 전 발표된 실손보험 관련 금융위 발표로 정부의 보험산업에 대한 규제가 최소한 합리성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고 판단할 수 있어(과거 우려의 해소) 투자심리는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현재의 높은 손해율은 보험료 산정에 반영한다는 것은 어찌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규제라는 측면에서 우려했던 것이 현실임. 문케어의 대한 의견은 이제 정리될 수 있음 - 그간 문케어와 관련된 불확실성(의료단체와의 협상 진행여부, 반사이익의 산정 기준, 비급여의 전환일정 등등)을 고민할 필요 없이 손해율이 100% 이상이면 이를 보험료 산정에 반영할 수 있음 - 3분기에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의 영향으로 예상보다 이익이 낮아질 수 있겠지만 10월말~11월초 자동차보험료 인상, 금리 상승, 실손관련 불확실성 해소 등을 감안할 때 손해보험업종의 강세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됨
증권	- 금주 증권업종은 시장 흐름 정도의 움직임이 예상됨 - 지난 2주동안 3분기 실적인 시장의 우려보다는 나쁘지 않다라는 논리로 증권업종의 반등이 이어졌지만 이제는 시장 변수의 개선이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야함 증권업종의 추가 상승 동력이 확보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임 - 전주 일평균 거래대금이 11.8조원 까지 회복되었지만 이는 일부 대량거래의 영향이 반영된 결과이며 아직은 주식시장의 주도업종이 부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며 소강국면에 진입한 미중무역 분쟁 역시 아직은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시장의 본격적인 반등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우리는 베어마켓랠리 정도를 생각하고 있으며 시장변수의 소폭 개선만 기대함 - 3분기에는 차별점은 채권평가이익과 IB, 4분기에는 IB 부분이라는 점에서 대형증권사 중심의 선별적 투자를 권유함

5. 금주 일정

일자	국가	내용	전기치	예상치
9월 27일	미국	FOMC회의		
9월 27일	미국	2분기 GDP 발표(QoQ)	4,20%	4,20%

6. 전주 뉴스/자료 Review

▶ 삼성화재와 전기가 삼성물산 자분 1조원 규모 매각, 순환출자 고리 해소
삼성화재와 삼성전기가 보유하고 있던 삼성물산 주식을 시장에 매각하였음. 이로 인하여 삼성그룹의 순환출자가 해소되었음. 삼성화재는 261만 7,297주, 삼성전기는 500만주를 처분하였음

▶ [단독] 금감원, 은행 환전수수료 부과체계 손본다 (머니투데이)
환전수수료율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 부과 체계 점검 예정

▶ 갈길 먼 은행-증권 IB 협업…금융당국만 바라보는 지주 (뉴스토마토)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은 은행과 은행의 연계 영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하다는 것일 뿐 은행-증권의 연계 영업에서는 인센티브가 불가능함. 복합점포 내의 은행원이 같은 복합점포 내 증권사 직원에게 IB딜을 넘겨주면 그에 따른 인센티브가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금융감독원의 부수업무 허가가 나지 않아 아직 막혀있음.

▶ [단독] NH투자證, 홍콩법인 1.2억 달러 실단 쏈다…이사회 승인 거쳐 한 달 내 마무리될 듯 (매경)
홍콩 현지법인을 대상으로 1,350억원 규모 증자를 추진 중, 현재 홍콩법인의 자본금은 약 2,500억원임. 농협금융그룹 차원의 CIB 사업의 거점 육성 때문임.

▶ 금감원, 예탁원·유진證 해외주식 검사 다른 증권사로 확대 (연합인포맥스)
금감원은 예탁원과 유진투자증권 검사 이후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등 해외주식 거래를 하는 모든 증권사를 대상으로 해외주식과 관련한 시스템 등을 점검

▶ 금감원, 삼성생명에 암보험 요양병원비 지급 권고 (머니투데이)
18일 본조위 결과, 암보험 요양병원비와 관련해 삼성생명에는 지급권고를, 교보생명에는 부지급을 결정, KDB 생명에서는 즉시연금 과소지급분 추가 지급을 권고하였음.

▶ [단독] 카카오뱅크, "신용카드업 매력 없다"…사업 계획 철회(이투데이)
당분간 간편결제, 법인계좌에 집중. 우리는 신용카드업의 업황을 감안할 때 개인정보 취득을 통한 신용대출 사업 확장 정도에 도움이 될 뿐 수익성에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음

▶ LB인베스트, 코스닥 입성 추진…VC 상장 대열 합류 (더밸)
린드먼아시아인베스트먼트, SV인베스트먼트, 나우비캐피탈이 상장되었으며 미래에셋벤처투자, 네오플릭스, KTB네트워크, 아주IB투자 등이 상장을 준비하고 있음.

▶ 또 3% 넘은 美 국채금리…韓 챠권 약세 (이데일리)
전일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6.76bp 상승한 3.0592%, 2년물 금리는 2.8072%로 마감, 국채 10년물이 3%를 다시금 넘었음. 한국의 경기 상황을 감안할 때 한국 장기채권의 커플링이 강하지는 않겠지만 일정부분의 영향을 존재할 것으로 판단

		현재가 (Local)	Mkt. Cap. (USD bn)	PBR (FY18F)	PER (FY18F)	ROE (FY18F)	ROA (FY18F)	Performance (%)				
								1 W	1 M	3M	6M	YTD
한국	KOSPI	2,339		1.0	9.4	11.2	3.0	0.9	3.0	0.1	-5.9	-5.2
	보험	17,471		0.6	8.9	7.2	0.7	2.8	-0.4	-2.8	-13.6	-17.4
	삼성생명	96,000	17.2	0.6	8.4	7.1	0.7	4.3	3.0	-2.8	-18.6	-22.9
	한화생명	5,070	3.9	0.4	7.1	5.8	0.4	3.2	2.9	-7.8	-21.3	-26.6
	ING생명	33,200	2.4	0.7	7.8	9.5	1.1	-3.2	-10.0	-18.6	-25.2	-37.8
	동양생명	6,300	0.9	0.4	9.7	4.3	0.3	-0.6	-7.8	-17.6	-14.3	-17.1
	삼성화재	265,000	11.3	1.0	11.9	8.7	1.3	2.5	-1.9	1.1	-6.0	-0.7
	DB손해보험	66,700	4.2	0.9	6.9	13.0	1.2	6.2	-1.6	10.2	-0.3	-6.3
	현대海上	37,850	3.0	0.8	6.2	14.2	1.2	2.7	-0.4	6.3	-1.7	-19.5
	메리츠화재	18,550	1.9	1.2	7.8	14.9	1.4	0.0	-2.1	-5.8	-14.3	-21.1
	한화손해보험	6,630	0.7	0.5	5.2	11.2	0.9	-4.2	-2.5	-5.7	-21.5	-18.6
	증권	1,883		0.8	9.1	9.3	1.0	0.7	5.5	-4.9	-11.2	-5.2
	삼성증권	32,100	2.6	0.6	7.8	8.1	0.9	0.5	1.1	-10.1	-22.0	-12.3
	미래에셋대우	8,390	5.0	0.7	9.4	7.9	0.7	1.2	5.4	-3.5	-10.6	-8.7
	NH투자증권	14,000	3.5	0.8	10.0	8.5	0.9	1.8	10.2	-7.6	-2.8	0.7
	한국금융지주	74,700	3.7	1.0	7.4	14.3	1.1	4.6	9.2	-11.7	-10.5	8.3
	키움증권	95,400	1.9	1.1	8.0	16.6	2.3	2.5	6.5	-11.7	-12.1	8.9
일본	Nikkei225	23,870		1.8	16.8	10.5	2.1	4.6	5.6	6.0	15.8	4.9
	보험	1,117		0.9	11.5	7.0	0.9	12.3	8.3	10.4	17.9	5.4
	Dai-ichi Life Holdings	4,830	30.4	2.7	56.3	4.7	2.6	5.3	14.3	11.9	29.4	64.5
	Japan Post Insurance	2,700	14.4	0.8	17.7	4.6	0.1	7.5	13.0	16.1	3.8	1.9
	Tokio Marine Holdings	5,579	37.1	1.0	15.3	7.3	1.1	9.9	4.4	4.6	11.0	8.5
	증권	420		0.9	11.0	7.1	0.6	8.0	9.4	6.3	2.5	-3.3
	Nomura Holdings	556	18.0	0.7	7.7	9.0	0.6	7.9	9.1	3.3	-11.0	-16.4
	Daiwa Securities	714	10.8	0.9	11.0	8.6	0.6	6.6	7.5	15.2	2.0	1.0
	SBI Holdings	3,420	6.8	1.7	14.9	11.9	1.2	10.5	18.9	16.0	31.8	45.2
중국/홍콩	Hang Seng	27,954		1.3	11.4	13.0	1.2	2.4	1.0	-4.7	-7.8	-6.6
	상해A주 지수	2,930		1.3	11.3	12.2	1.1	4.3	2.5	-3.2	-11.3	-15.4
	보험	145		1.3	11.4	11.1	1.9	6.6	0.4	-6.6	-13.6	-19.6
	China Life	18	84.1	1.3	11.1	12.0	1.4	5.9	-4.7	-14.0	-20.3	-26.9
	Ping An Insurance	79	181.9	2.3	12.4	19.8	2.0	5.0	8.4	4.3	-9.8	-2.7
	AIA	68	104.8	2.4	19.9	12.7	2.5	4.6	-1.2	-1.2	0.9	1.7
	증권	88		1.1	17.3	6.9	11.5	4.1	-0.5	-7.9	-23.6	-30.6
	CITIC Securities	14	28.0	0.9	12.6	8.0	2.0	6.8	-3.6	-14.7	-25.1	-12.8
	Haitong Securities	8	13.9	0.6	10.2	6.6	1.6	5.5	3.7	-10.0	-30.7	-33.8
	Huatai Securities	12	17.2	0.8	11.5	7.4	1.9	10.9	-5.4	-11.5	-25.4	-25.7
미국	S&P500	2,930		3.4	18.1	18.3	3.5	0.8	1.9	6.3	13.2	9.6
	보험	404		1.4	12.4	11.3	1.5	2.7	4.2	7.6	6.2	0.6
	AIG	55	48.6	0.8	12.2	6.8	0.8	2.7	2.9	0.4	-0.3	-8.2
	Metlife	49	48.5	1.0	9.3	10.3	0.7	4.9	5.1	6.7	6.7	-3.5
	Prudential Financial	105	43.7	0.9	8.6	11.7	0.6	4.8	6.0	8.5	-0.4	-9.0
	증권	205		2.1	14.9	13.2	1.2	1.4	1.9	-1.6	1.7	0.9
	JP Morgan	118	396.1	1.7	12.9	13.5	1.3	3.8	2.5	11.4	7.2	10.2
	Goldman Sachs	235	92.3	1.2	9.6	12.8	1.0	2.7	-1.7	4.1	-6.8	-7.6
	Charles Schwab	52	70.0	3.7	21.2	18.8	1.3	1.3	1.8	-5.6	-2.9	0.9
유럽	MSCI Europe	130		1.8	14.5	10.5	1.0	1.8	0.3	-0.1	5.1	-1.4
	보험	77		1.2	11.0	12.8	1.0	3.6	4.0	4.5	3.3	0.3
	Allianz	193	96.1	1.3	10.9	11.6	0.8	3.7	3.7	9.7	4.3	0.7
	AXA	23	66.4	0.8	9.4	8.8	3.8	5.4	7.2	9.0	7.1	-5.6
	Prudential plc	1,815	61.5	2.7	12.0	22.7	0.5	6.4	3.6	0.0	-2.1	-4.8
	Munich Re	190	33.3	1.0	11.0	9.1	5.5	3.2	2.1	5.4	-0.2	4.9
	증권	74		1.2	14.8	6.5	0.3	3.6	2.9	2.3	0.1	-6.7
	UBS	17	63.6	1.1	11.3	9.3	0.5	5.7	5.0	5.9	-0.9	-6.6
	Credit Suisse	15	40.7	0.9	13.1	6.8	0.3	5.5	3.7	-0.7	-4.9	-10.9
	Deutsche Bank	11	25.6	0.3	26.8	0.7	0.1	7.7	5.7	11.0	-9.6	-33.6

자료: 한국 보험사, 증권사 추정치는 하이투자증권 기준, 한국 지수 추정치는 Inguide 컨센서스 기준, 이외 Bloomberg 컨센서스 기준

8. 주요국 금리 동향

		금리 수준 (%)						변동폭 (bp)					
		현재	1W	1M	3M	6M	연초	1W	1M	3M	6M	YTD	
한국	국고채	1 Year	1,837	1,775	1,754	1,844	1,918	1,853	6.2	8.3	-0.7	-8.1	-1.6
		3 Year	2,015	1,957	1,930	2,145	2,287	2,134	5.8	8.5	-13.0	-27.2	-11.9
		5 Year	2,215	2,122	2,142	2,390	2,510	2,347	9.3	7.3	-17.5	-29.5	-13.2
		10 Year	2,410	2,310	2,377	2,595	2,722	2,467	10.0	3.3	-18.5	-31.2	-5.7
일본	국고채	1 Year	-0.114	-0.111	-0.126	-0.131	-0.151	-0.145	-0.3	1.2	1.7	3.7	3.1
		10 Year	0.133	0.118	0.086	0.040	0.043	0.048	1.5	4.7	9.3	9.0	8.5
중국	국고채	1 Year	2,983	2,911	2,887	3,281	3,258	3,834	7.2	9.6	-29.8	-27.5	-85.1
		10 Year	3,699	3,677	3,655	3,604	3,817	3,902	2.2	4.4	9.5	-11.8	-20.3
미국	국고채	1 Year	2,564	2,554	2,425	2,321	2,036	1,732	1.0	13.9	24.3	52.8	83.2
		10 Year	3,063	2,996	2,830	2,897	2,883	2,405	6.7	23.3	16.6	18.0	65.7
유럽	국고채	1 Year	-0.528	-0.540	-0.521	-0.590	-0.563	-0.611	1.2	-0.7	6.2	3.5	8.3
		10 Year	0.462	0.450	0.331	0.335	0.592	0.427	1.2	13.1	12.7	-13.0	3.5

자료: Bloomberg

Compliance Notice

당 보고서 공표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 회사는 해당 종목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분석사와 그 배우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및 제 3자에게 E-mail 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회사는 6개월간 해당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과 관련 주관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강승건)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투자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1. 종목추천 투자등급 (추천일 기준 증가대비 3등급) 종목투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추천일 증가대비 해당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2017년 7월 1일부터 적용)

- Hold(보유): 추천일 증가대비 -15% ~ 15% 내외 등락

- Sell(매도): 추천일 증가대비 -15%이상

2. 산업추천 투자등급 (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하는 것임)

- Overweight(비중확대) - Neutral(중립) - Underweight(비중축소)